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

리더십의 차별, 기회, 고충에
관한 보고서

션 페인 박사
수전 바넷 박사
2021



RESEARCH
SERVICES

왜 모든 미국장로교 목회자들에게 실시하는가? 왜 지금인가?

성도, 교회 직원, 중간공의회, 교단 지도자들은 리서치 서비스에 목회자들에게 대한 질문을 자주 묻는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하기 어려웠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이와 같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페리 장 박사가 이 작업을 맡았다. 이 보고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것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질문들도 제기하고 있다. 새 설문조사는 소수인종 목회자, 은퇴 목회자, 이종직 목회자, 위임 목회 장로, "파트 타임" 목회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초유의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의 성공은 많은 협력 기관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협력기관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면, 연금국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인 Call to Health이 건강 증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었다.
- 출판국은 이 설문조사를 마치는 모든 이들에게 향후 구매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 총회사무국, 선교국, 재단국의 의사소통 담당 직원들은 설문조사 링크를 포함하는 여러 이야기를 쓰기도 했다.
- 총회 중간공의회 관계 사무처 직원들은 그 소식지에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알렸다.
- 교단 차원의 몇몇 위원회는 설문조사 링크를 그 구성원과 공유하였다.
- 모든 기관의 데이터 그룹의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토론하고 미국장로교의 데이터와 데이터 보고서를 논의하고 개선했으며,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해나갔다.

왜 지금인가? 교회가 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전 바넷 박사

디렉터, 리서치 서비스
행정 서비스 그룹
미국장로교

개요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는 110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으며 2019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되었다. 우리는 주소지를 확보한 모든 목회자에게 우편엽서를 보내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도록 부탁드렸다. 이 설문조사는 또 연금국의 Call to Health 도전 프로그램의 하나였다. 연금국의 협력 덕분에 응답자의 절반이 확보되었다.

교단의 19,243명 (n=4,495)의 목회자 중 23%가 설문에 응답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장로교 목사들의 차별과 불평등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나이, 성별, 인종/민족, 기타 요인에 따른 차별을 조사했다.

주제는 미국장로교 내에서 리더들이 마주한 차별, 리더십, 승진, 기타 어려움을 다룬다.

04

차별과 괴롭힘: 미국장로교 목회자들은 어떻게 차별을 경험했나?

14

기회와 승진: 미국장로교 목회자의 기회는 인구 통계학적 및 기타 요인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24

리더십에 있어서의 어려움: 응답자들은 리더로서 어떤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고,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이러한 어려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3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차별과 괴롭힘

미국장로교 내에서 차별과 괴롭힘을 겪은 경험과 그 차별의 근거를 밝혀달라고 목회자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요청했다. 전반적으로는 응답자 37%가 일종의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해 보고했지만, 응답자의 연령, 성별, 인종에 따라 응답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 섹션에서는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반응을 다룬다. 응답자를 연령, 성별, 인종 및 민족성 및 기타 요인에 따라 구분하였다.



차별

응답자 37%가 일종의 차별이나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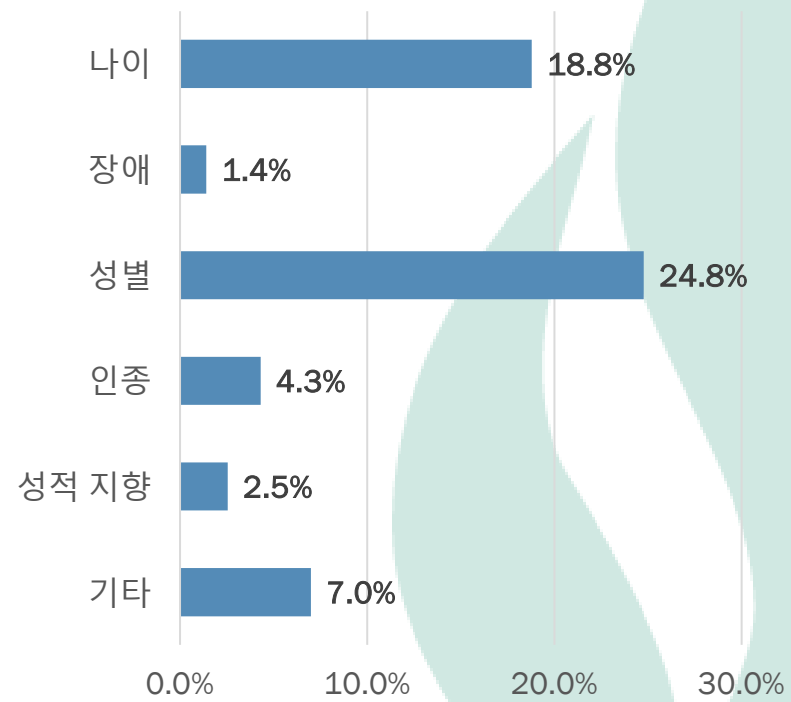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차별과 괴롭힘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장로교에서 차별, 괴롭힘을 당하거나 편견에 찬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 연령
- 장애
- 성별
- 인종, 문화, 민족
- 성적 지향성
- 기타 이유

예상한 대로, 응답자의 연령, 성별 및 인종에 따른 응답의 크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가 나이든 이, 남성, 백인으로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 백분율이 차별을 경험한 범위를 타나낸다고 할 수는 없다.

차별을 보고한 모든 응답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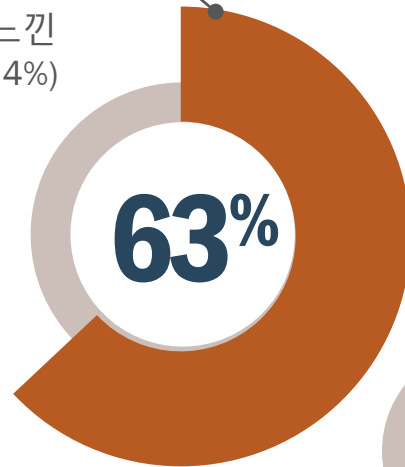
N = 3689

* 응답자들은 한 가지 이상의 차별 범주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이 표의 비율은 37%가 되지 않는다.

미국장로교에서 여성이 더 많은 차별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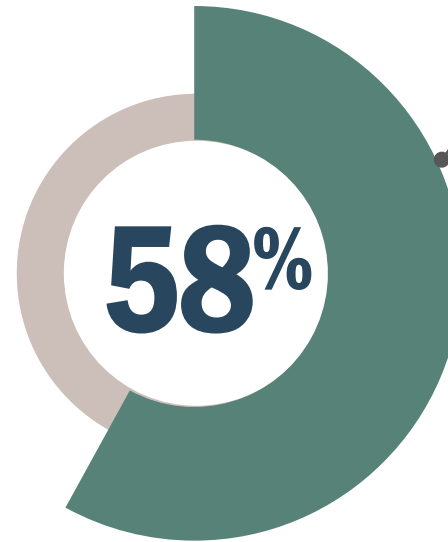
63%의 여성은 어떤 형태이든지 차별을 보고했다.

성별 다음으로 차별을 느낀 부분은 연령이었다.(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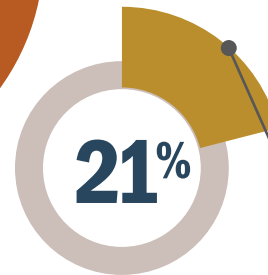
58%의 여성이 성차별을 경험했다.

오직 4%의 남성만이 성차별을 경험했다.



21%의 남성은 여러 형태의 차별을 보고했다.

남성이 보고한 가장 일반적인 범주는 연령(11.5%)이었고 기타(7.1%)가 그 뒤를 이었다.



성별 분류

응답자에게는 성별로 남성, 여성 또는 비이분법성(non-binary)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졌다. 비이분법성 응답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차트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비이분법성 응답자 6명 중 5명은 연령, 성별 또는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을 보고했다.

N=3,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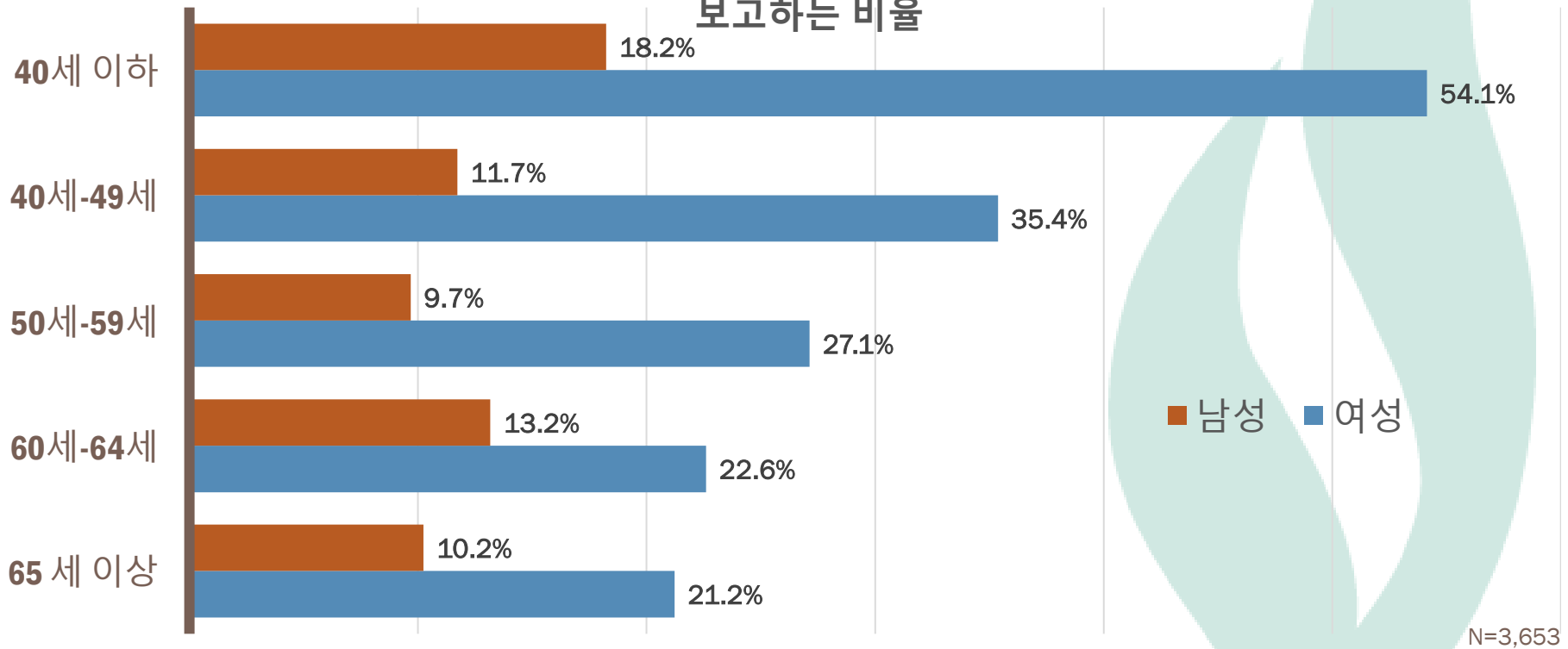
젊을수록 연령에 기초한 차별을 더 많이 보고했다

젊을수록 나이가 많은 응답자보다 연령에 기초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더 자주 보고했다. 모든 연령대의 여성은 남성보다 연령에 따른 차별을 더 많이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응답자가 연령에 기초한 차별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장로교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젊을수록 교단 내의 리더나 권위자로 받아들여지는 데 더 자주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젊은 여성은 자신의 나이가 리더십 발휘에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연령에 기초한 차별 또는 괴롭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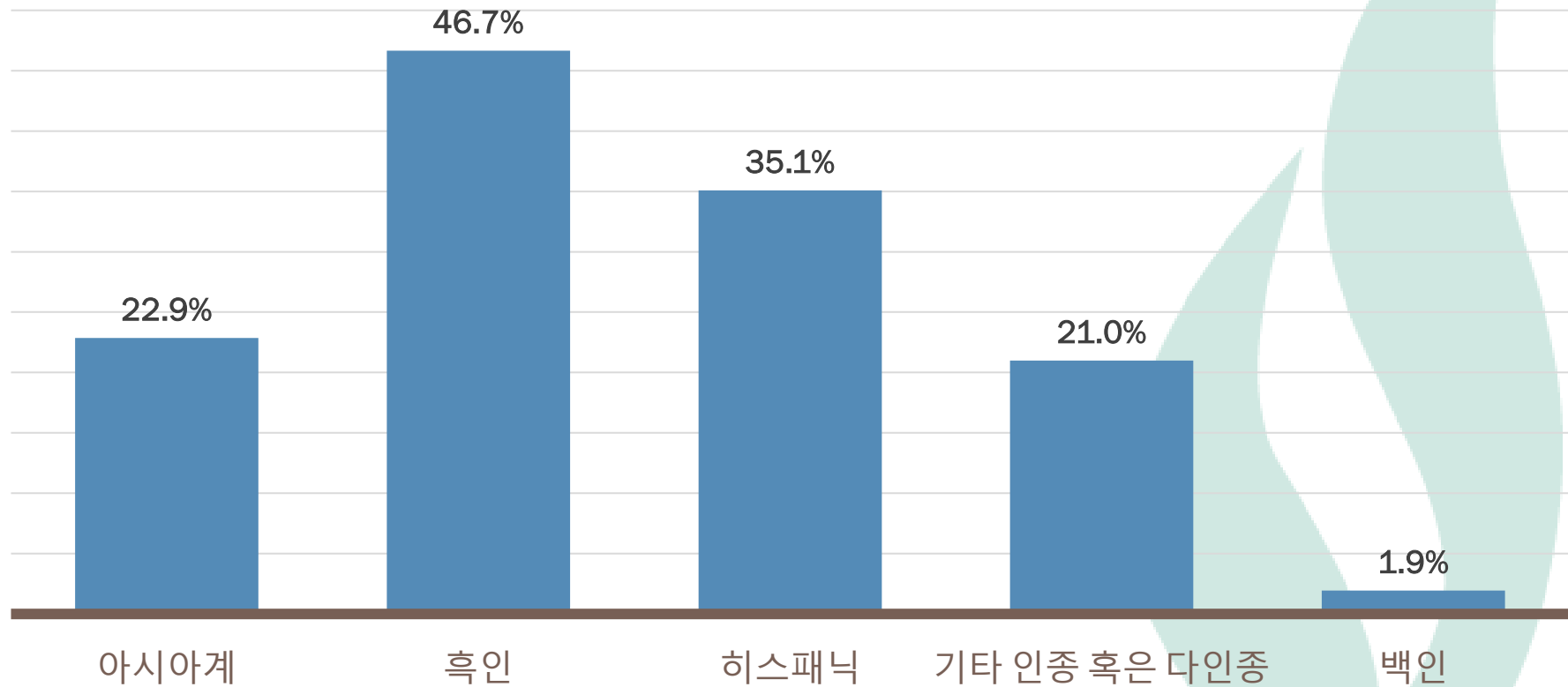
보고하는 비율



인종 및 민족 차별은 비백인 응답자에게 흔한 경험이다.

흑인 응답자가 가장 빈번하게 차별을 보고했으며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응답자가 그 뒤를 이었다.

인종이나 민족별로, 연령에 기초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보고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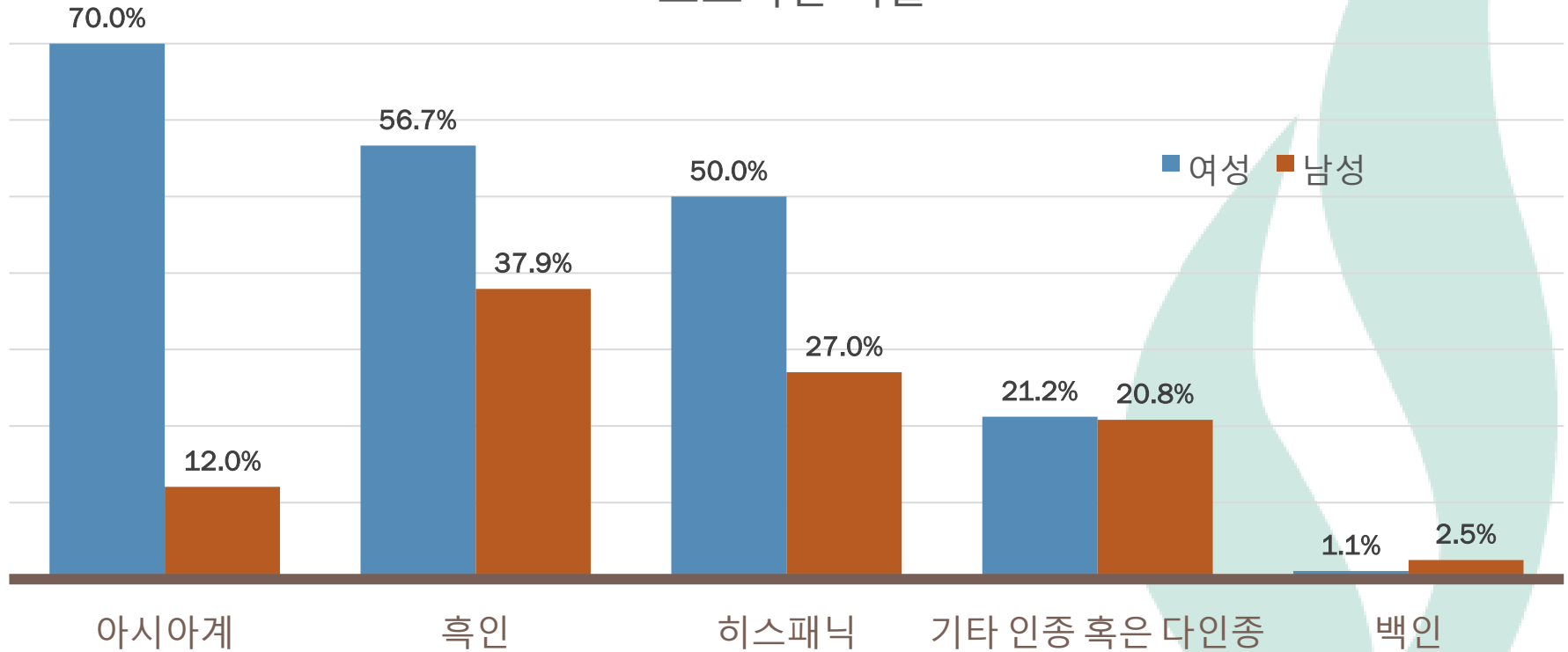


N=3,664

여성이 남성보다 인종 및 민족 차별을 더 많이 보고했다

백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 범주에서, 여성은 같은 그룹의 남성보다 인종이나 민족에 기반한 차별을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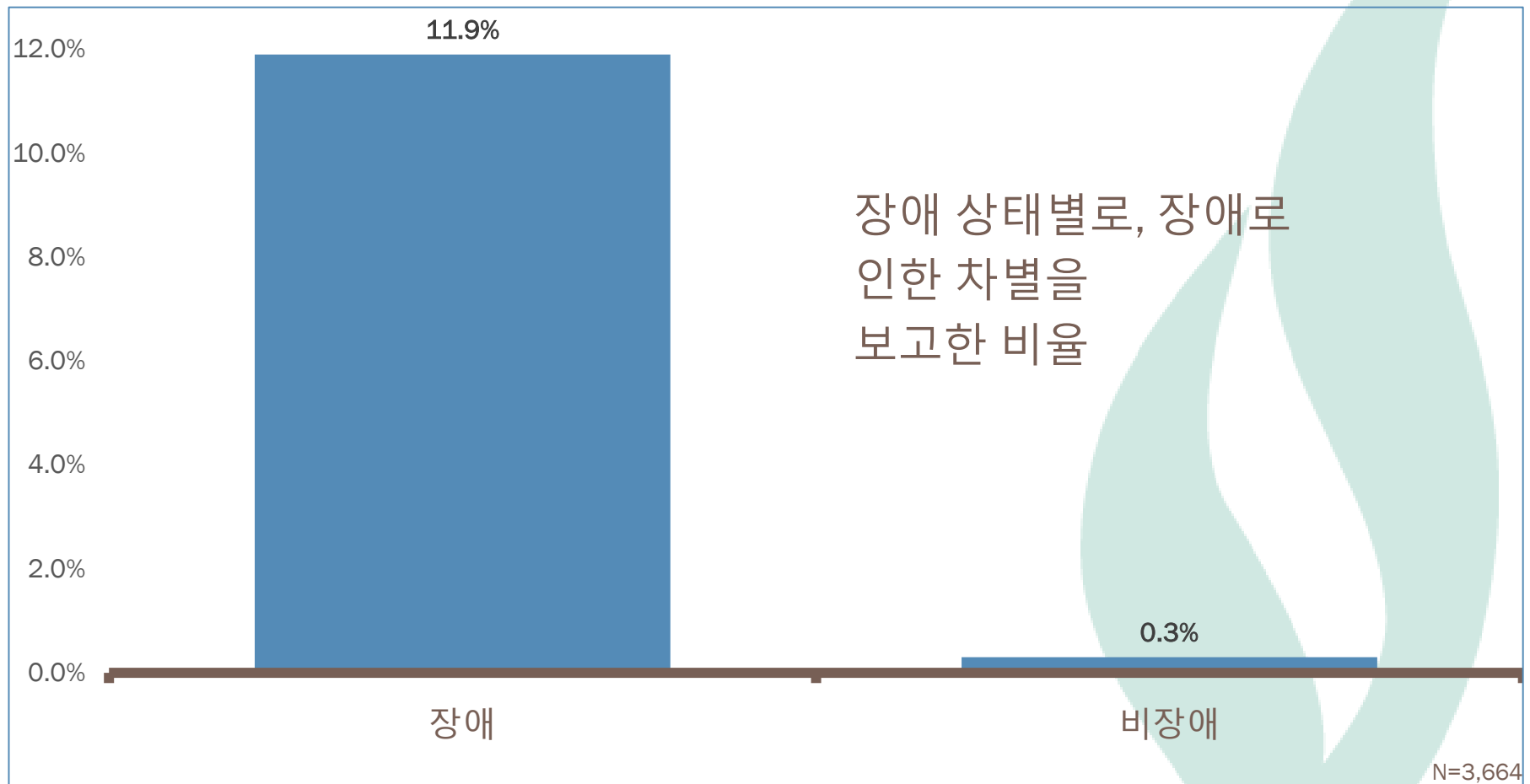
성별이나 인종별로, 인종이나 민족에 기초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보고하는 비율



N=3,664

장애에 기반한 차별에 대해서는 보고가 많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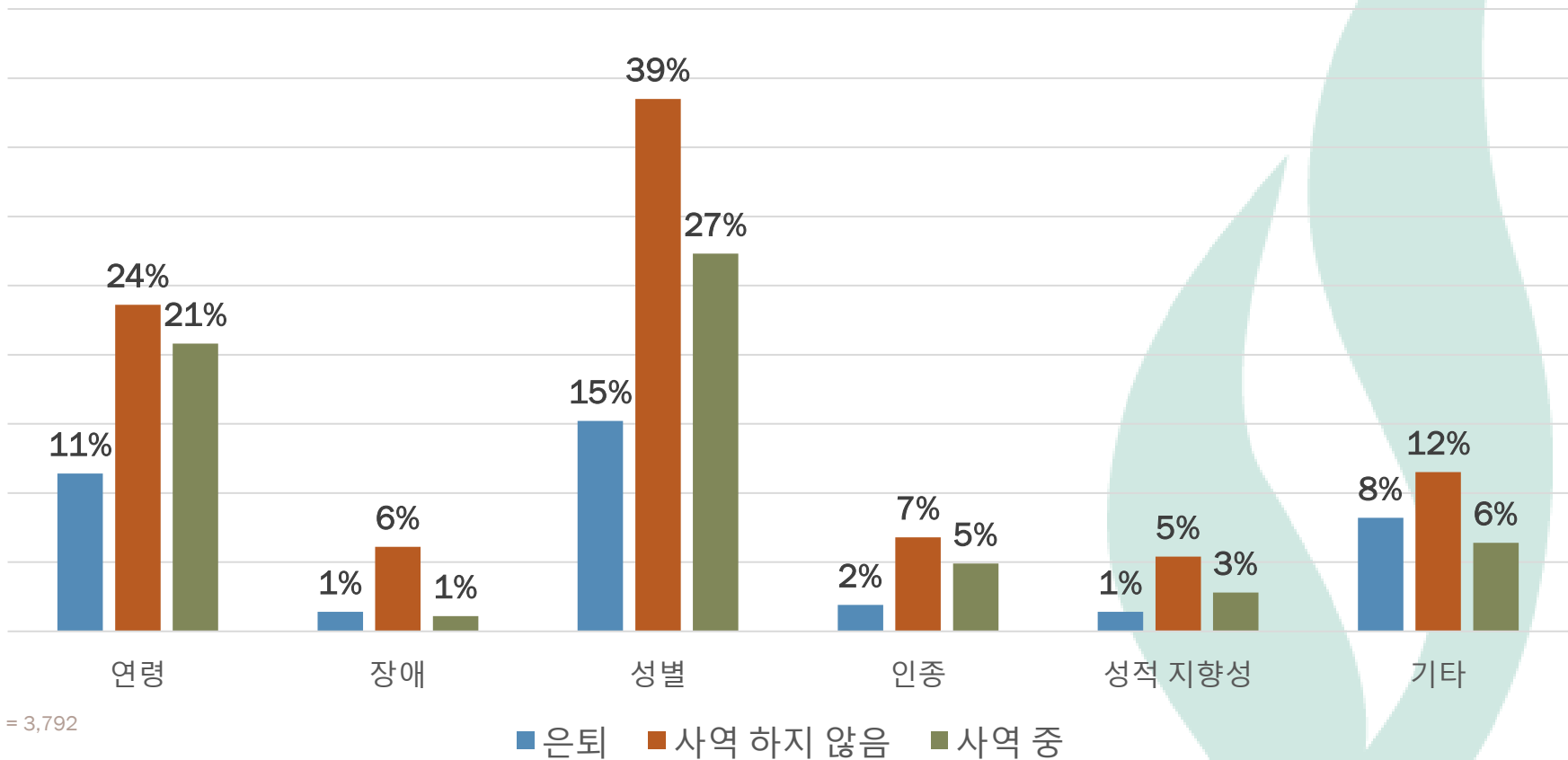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12%만이 장애로 인한 차별을 보고했다.



사역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더 많은 차별과 괴롭힘을 보고했다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역 중이거나 은퇴한 응답자보다 더 많은 차별을 보고했다. 대다수가 백인 남성인 은퇴한 응답자가 느끼는 차별이 가장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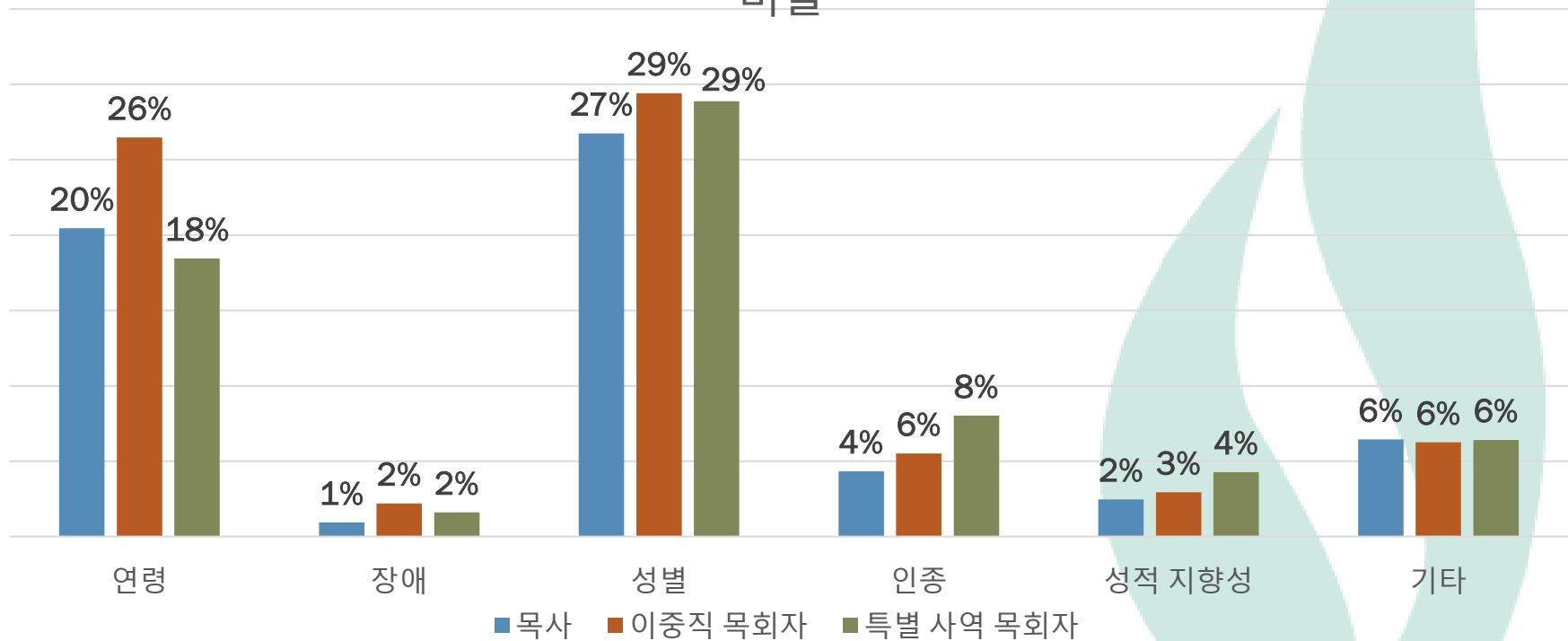
사역 상태별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보고한 비율



직위 수준에 따라 목회자들이 느끼는 차별의 정도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중직 목회자들은 목사나 전문 사역자들과 비슷한 평균 연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따른 차별이 조금 더 많다고 보고했다.

직위별로 직위 차별 또는 괴롭힘을 보고한 사역 중인 목회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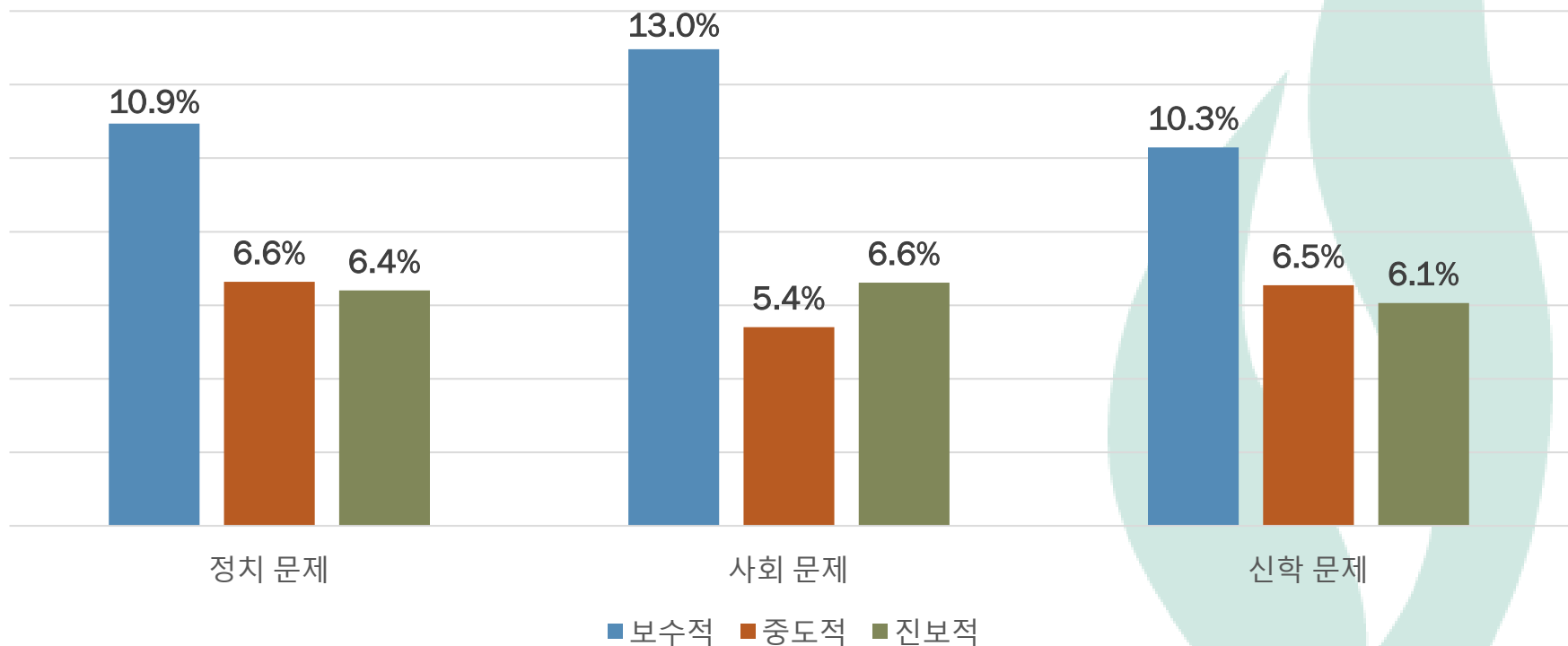


N = 3,792

보수적인 응답자들이 "기타" 차별을 더 많이 보고했다

정치, 사회 문제, 신학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스스로 밝힌 응답자는 온건파나 진보주의자보다 "기타" 범주의 차별이나 괴롭힘을 더 많이 보고했다. 다른 범주의 차별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치적 입장별로 기타 차별을 보고한 비율



기회와 승진

응답자들은 리더십, 승진 및 해고와 관련된 일련의 질문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리더로 인정받기 위해 애썼는지, 승진이나 직위에서 제외당했다고 느꼈는지, 강등이나 해고의 대상이 되었다고 느꼈는지와 그 이유를 물었다.

이 항목에서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을 검토하고, 인구 통계 및 기타 요인별로 데이터를 분류했다. 여성, 비백인 및 젊은 응답자는 더 많은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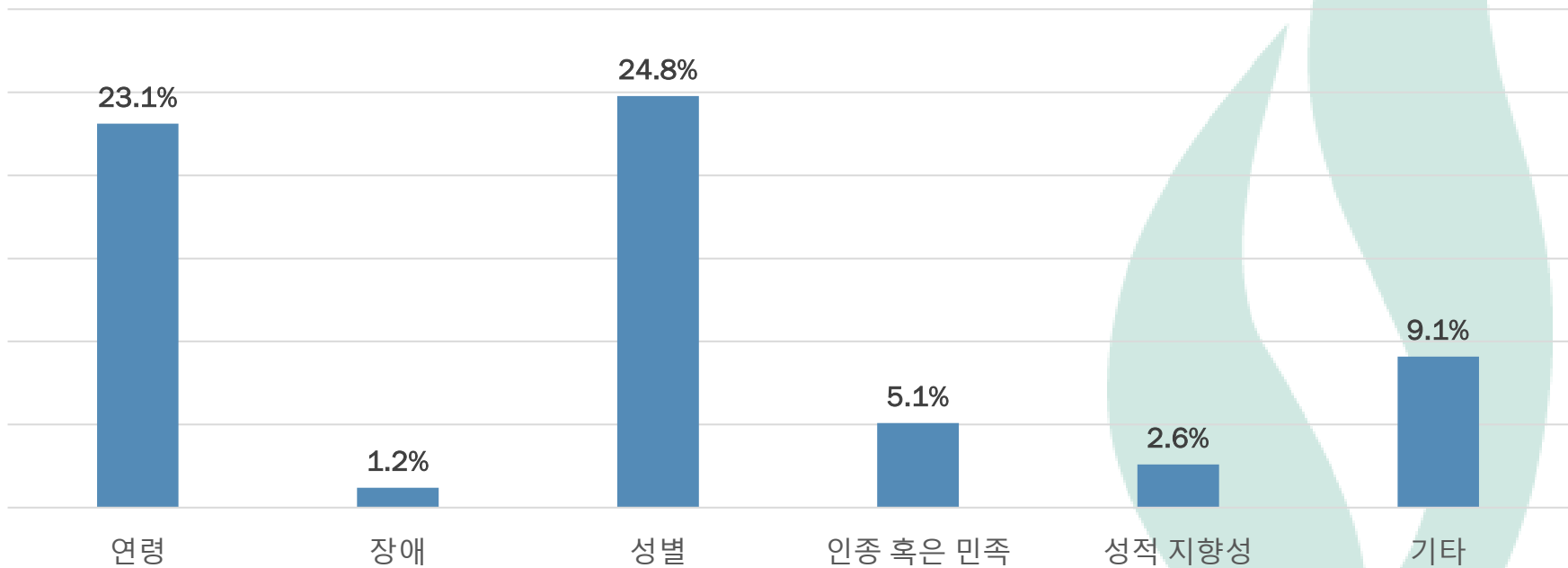


응답자의 40%는 미국장로교의 리더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어려움의 가장 흔한 이유는 성별과 나이였다. 장애와 성적 지향은 가장 적게 선택된 이유였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백인이고 이 질문에 대해 백인과 비 백인 응답자 사이에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차트에서 인종이나 민족이 낮은 이유로 나타난다.

원인별로, 리더로서 인정받는 고충에 대해 보고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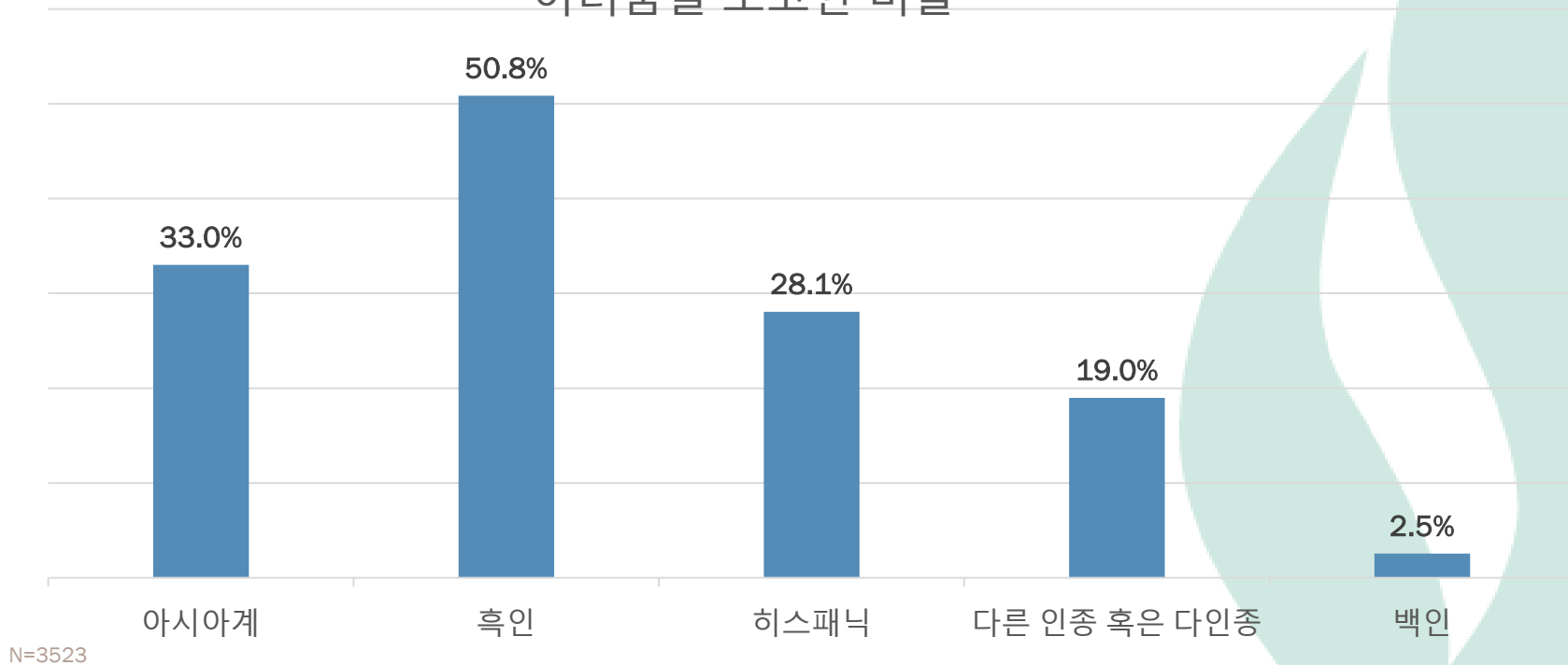
N = 3,639

* 응답자들은 한 가지 이상의 차별 범주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이 표의 비율은 40%가 되지 않는다.

비 백인 응답자는 인종이나 민족 때문에 지도자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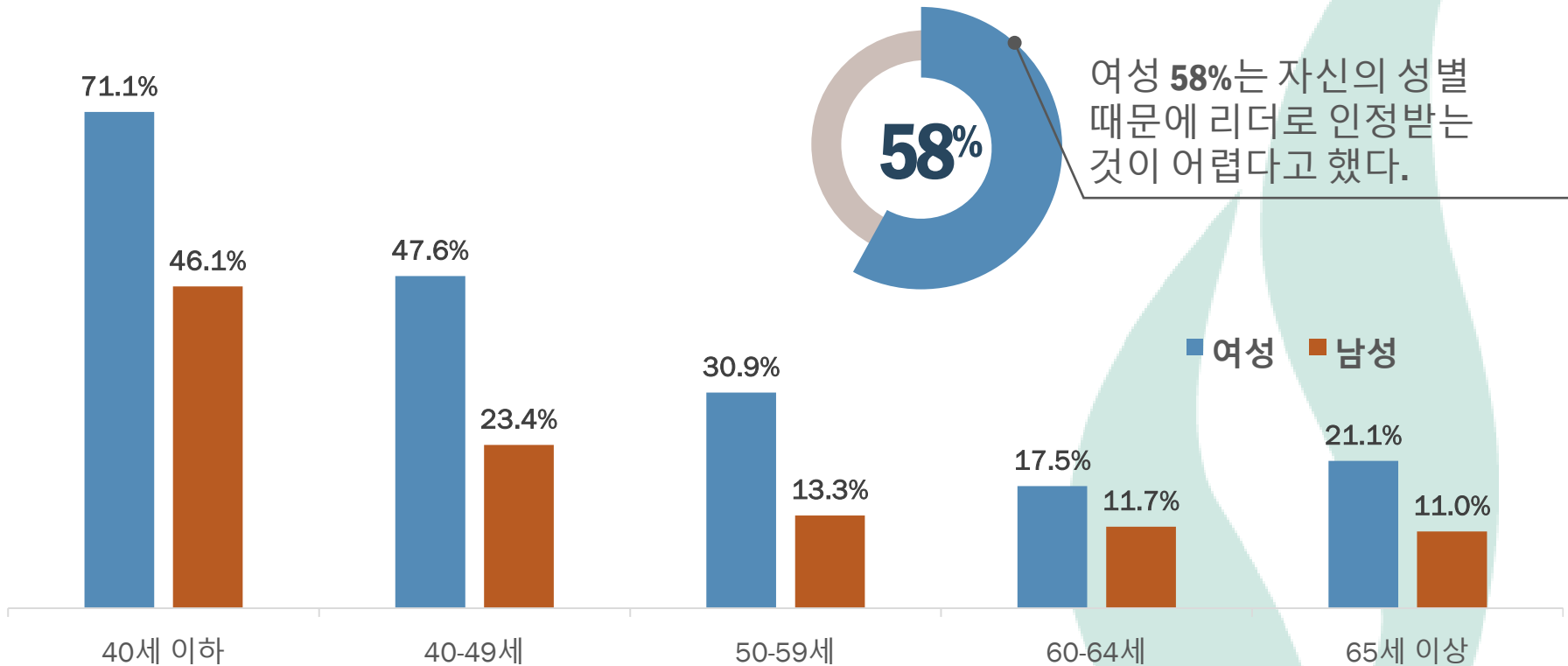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흑인 응답자가 인종이나 민족 때문에 지도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인종별로, 인종이나 민족 때문에 리더로서 인정받는 데 겪는 어려움을 보고한 비율



여성과 젊은 응답자는 리더로 받아들여지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

젊은 여성은 리더로 인정받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별과 연령을 주요 요인으로 많이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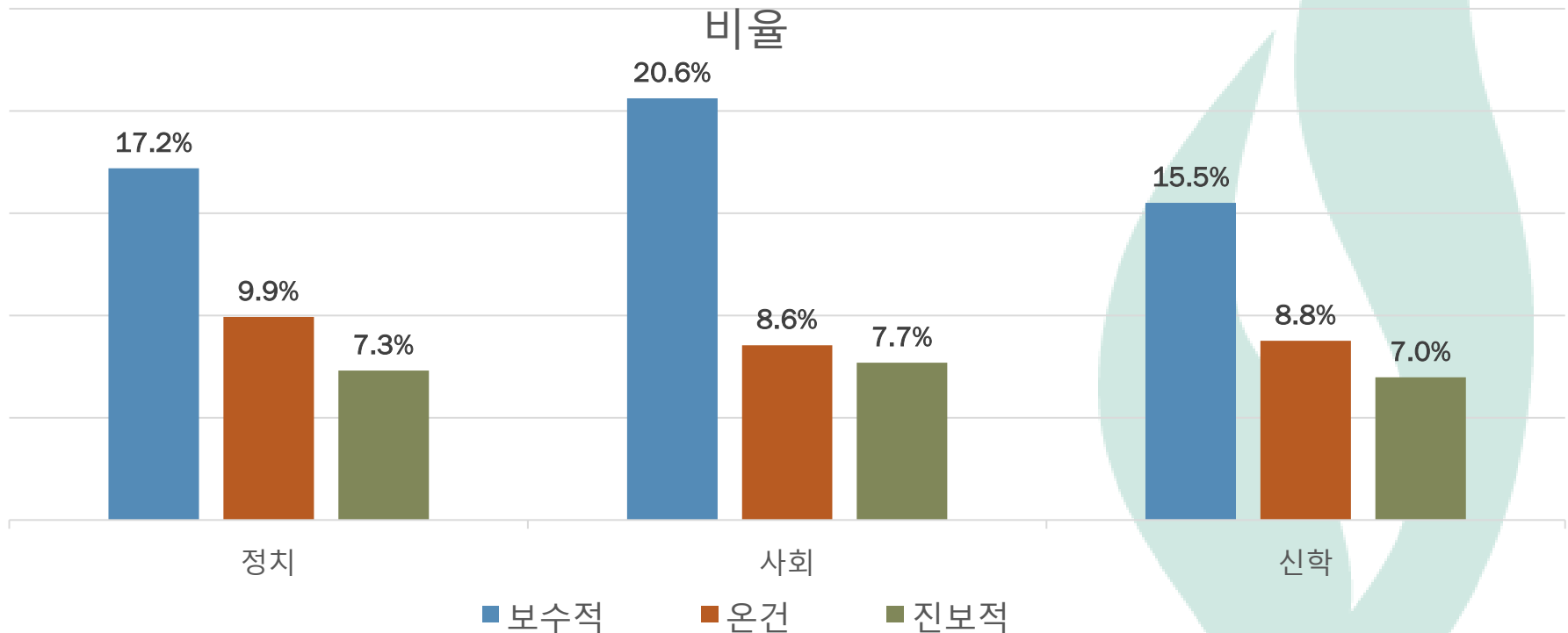
연령별로,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고충에 대해 보고한 비율

N = 3573

보수적 응답자는 "기타" 이유로 리더로 인정받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신학적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스스로 밝힌 응답자는 진보적인 응답자보다 기타 이유로 지도자로 인정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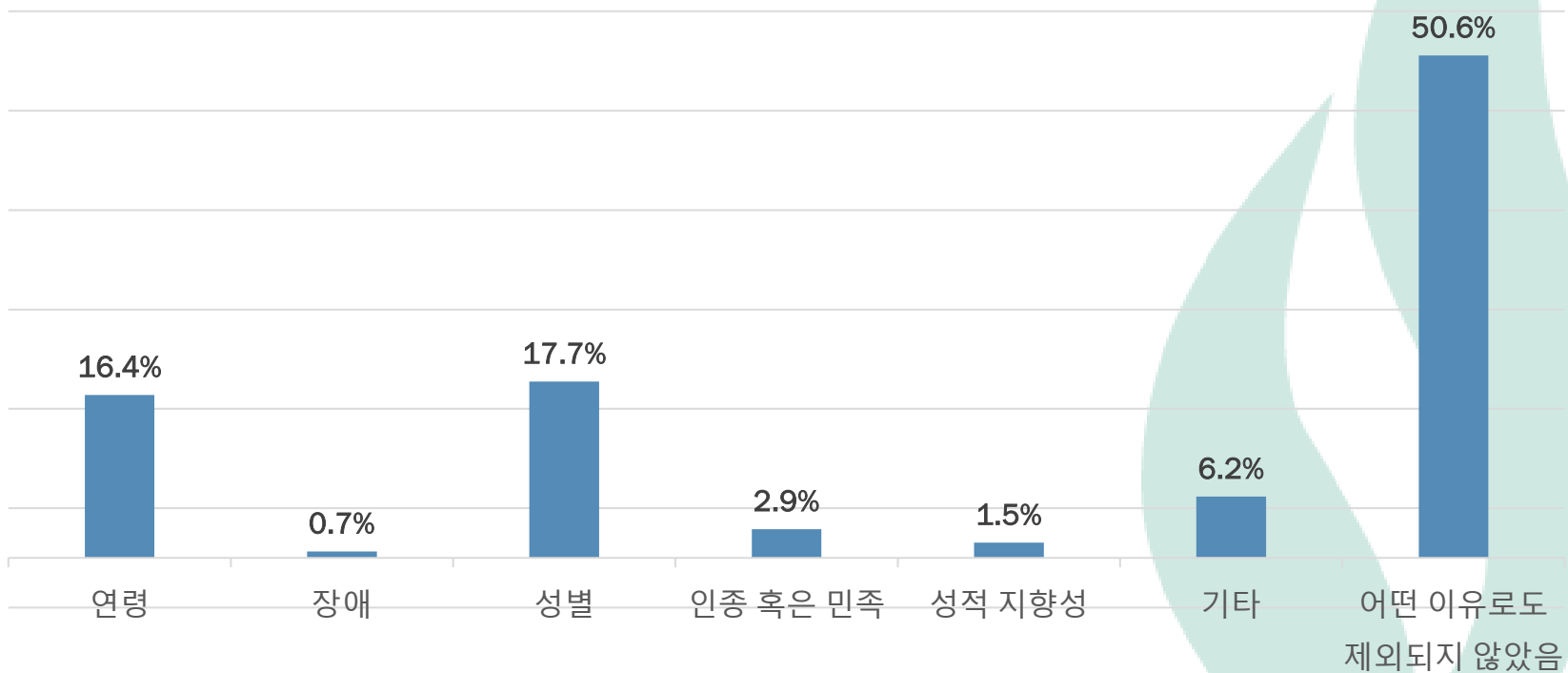
기타 원인으로 인해 리더로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신이 어떤 이유로든 승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승진에서 제외되었다고 느끼는 응답자에게 보고된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성별과 연령이었다. 장애와 성적 지향성은 가장 적게 선택된 이유였다.

원인별로 승진 제외를 보고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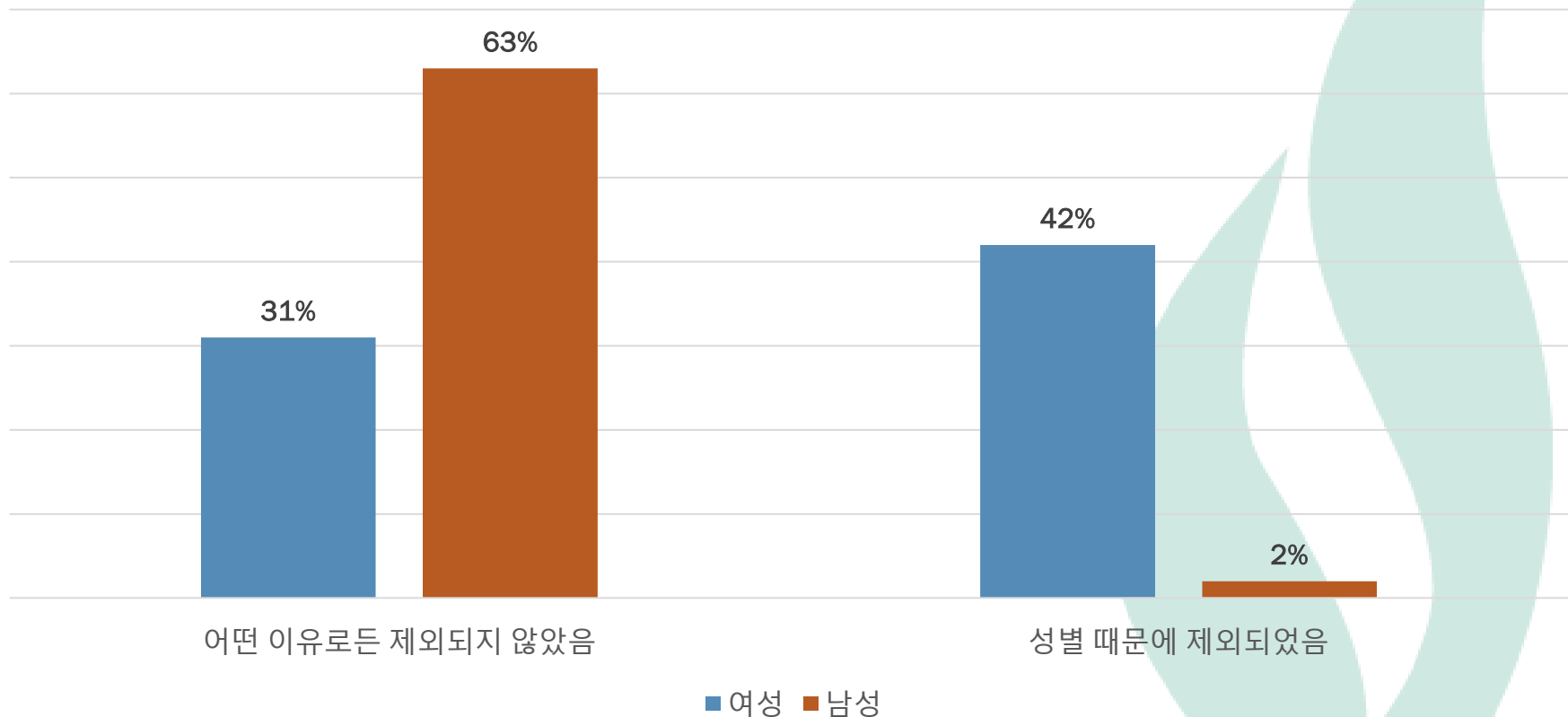


N = 3573

여성의 42%는 성별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고했다

남성은 “어떤 이유로든 제외되지 않았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여성보다 2배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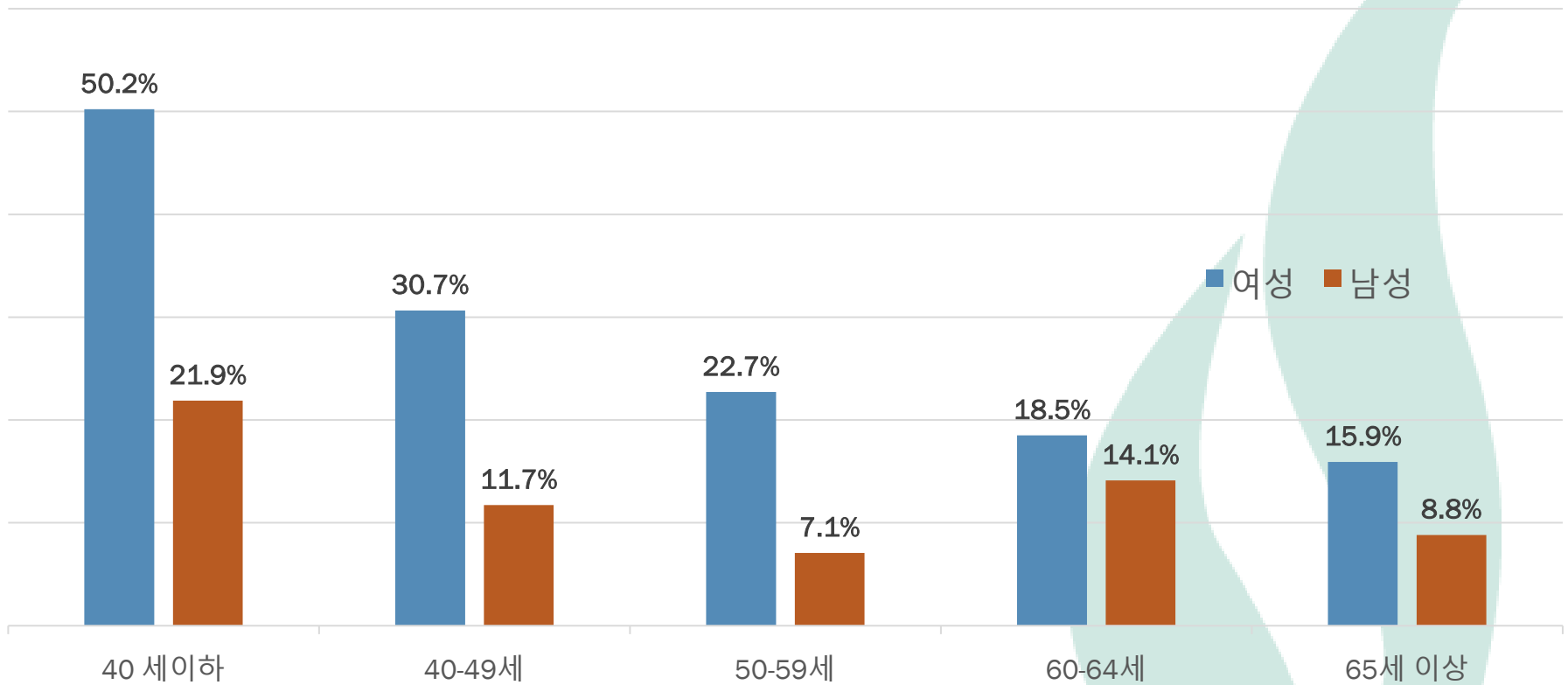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승진 제외



N = 3673

젊은 사람들은 나이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된다고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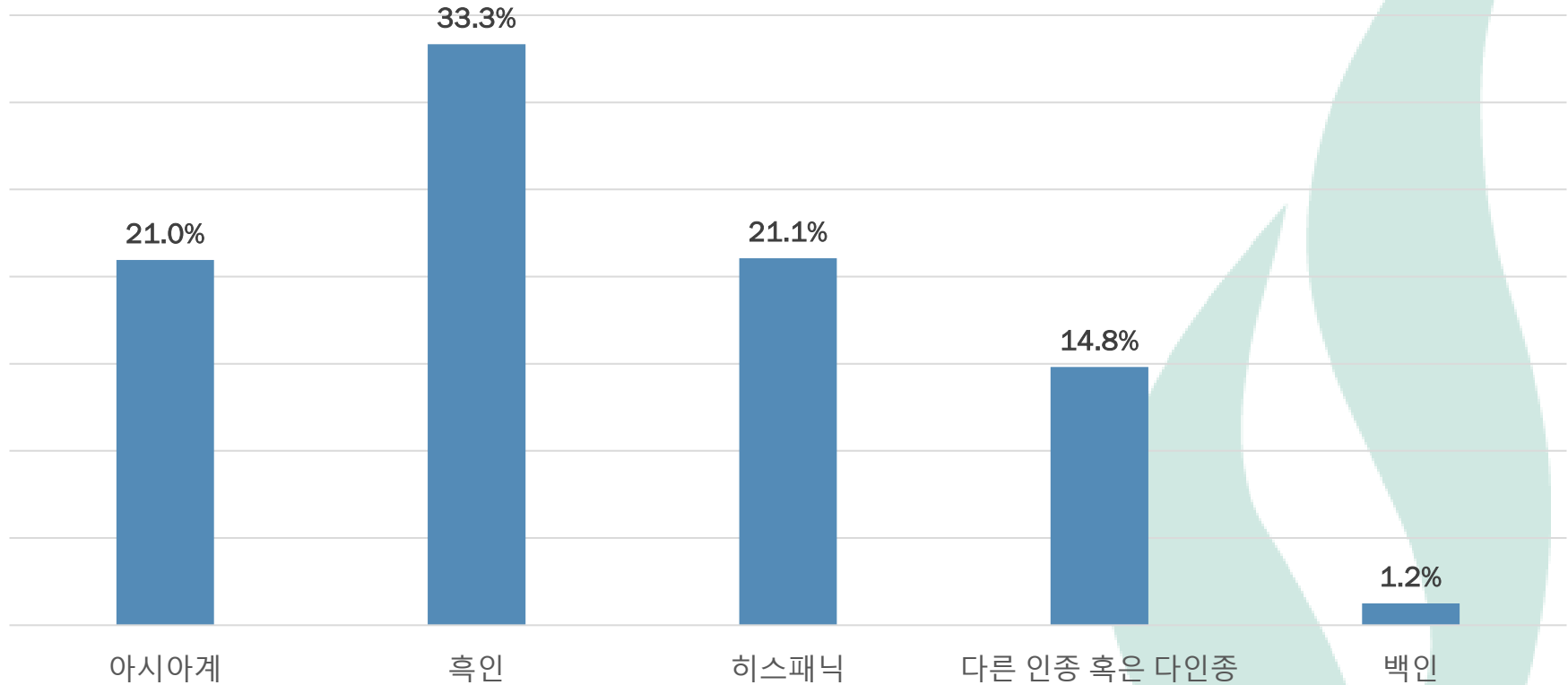
젊은 여성 응답자는 가장 보편적으로 나이 때문에 제외당한다고 느꼈다. 모든 연령 범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나이에 대해 소외되는 느낌을 더 일반적으로 보고했다.



나이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

N = 3573

일부 비백인 응답자는 인종이나 민족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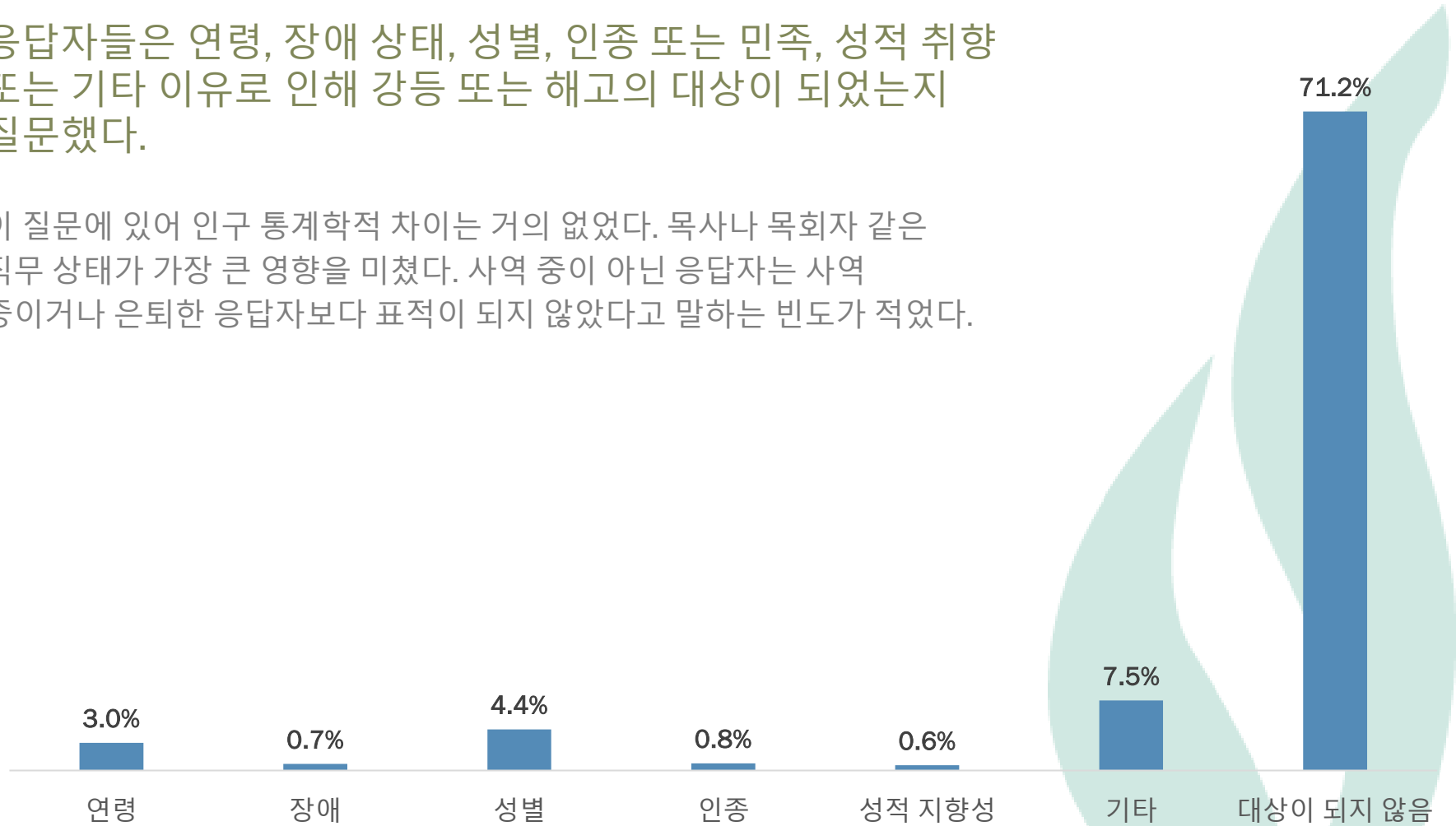


인종/민족별로 인종이나 민족 때문에 제외된다고 느끼는 비율

대부분의 응답자는 강등이나 해고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응답자들은 연령, 장애 상태, 성별, 인종 또는 민족, 성적 취향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강등 또는 해고의 대상이 되었는지 질문했다.

이 질문에 있어 인구 통계학적 차이는 거의 없었다. 목사나 목회자 같은 직무 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사역 중이 아닌 응답자는 사역 중이거나 은퇴한 응답자보다 표적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빈도가 적었다.



해고 또는 강등의 표적이 되는 이유

리더십의 어려움

응답자들은 미국장로교 리더로서 어려움을 겪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 여기에는 다른 지도자들과의 관계, 권위자로서의 역할, 급여와 직접 관련된 질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항목에서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을 검토하고, 인구 통계 및 기타 요인별로 데이터를 분류했다. 보고서의 이전 항목에서 나왔던 패턴은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즉, 여성, 비백인 및 젊은 응답자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더 많은 장벽과 투쟁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목회자들을 미국장로교 내 리더십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1-7의 차등 척도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리더십 어려움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권위, 포용, 인정, 검증에 대한 질문들 모두 매우 유사한 범위의 답변을 받았다.

| 미국장로교 내 리더로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겪은 적이 있는가: | 전혀 아니다(1) | (2) | (3) | (4) | (5) | (6) | 상당히 많음 (7) | N |
|---|-----------|-----|-----|-----|-----|-----|------------|------|
| 권위자로서 인정받기 | 36% | 19% | 11% | 11% | 12% | 8% | 4% | 3189 |
| 다른 지도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짐 | 38% | 21% | 12% | 10% | 10% | 6% | 3% | 3220 |
| 리더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음 | 39% | 21% | 12% | 10% | 10% | 6% | 4% | 3257 |
| 내 일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음 | 40% | 21% | 11% | 10% | 8% | 6% | 4% | 3249 |

대부분 목회자들을 미국장로교 내 리더십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1-7까지의 차등 척도에서, 낮은 급여와 외로움은 리더로서의 어려움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었다. 혼인 여부로 인한 불신은 가장 적게 언급된 어려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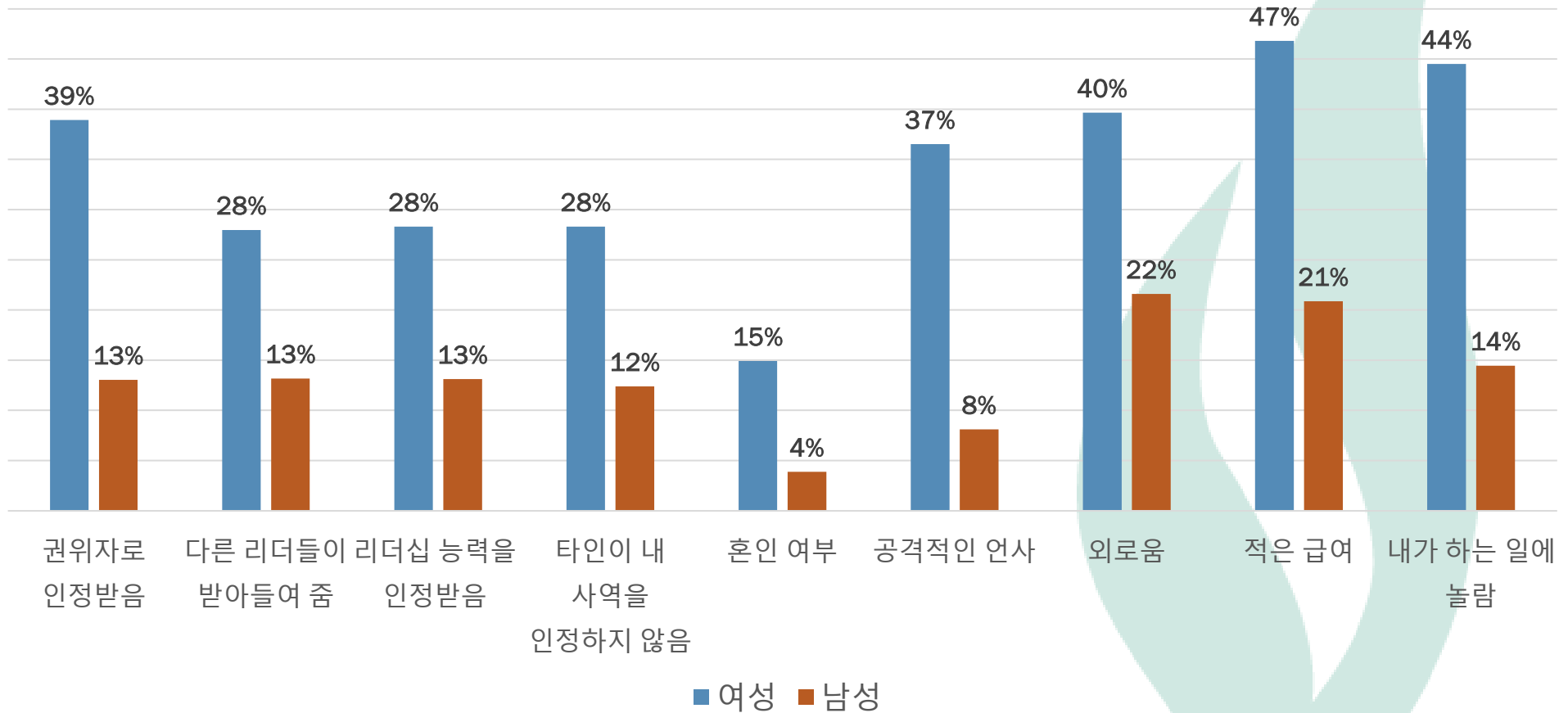
| 미국장로교 내 리더로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겪은 적이 있는가: | 전혀 아니다(1) | (2) | (3) | (4) | (5) | (6) | 상당히 많음 (7) | N |
|---|-----------|-----|-----|-----|-----|-----|------------|------|
| 혼인 여부로 인한 불신 | 76% | 9% | 4% | 4% | 4% | 2% | 2% | 3126 |
| 적절하지 못한 조언이나 질문 | 49% | 15% | 9% | 9% | 8% | 7% | 4% | 3205 |
| 외로움 | 34% | 15% | 12% | 11% | 12% | 10% | 7% | 3255 |
| 적은 급여 | 30% | 15% | 12% | 12% | 10% | 11% | 9.5% | 3238 |
|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불신하거나 놀람 | 36% | 17% | 10% | 11% | 9% | 9% | 9% | 3239 |

여성은 리더로서 더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모든 범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2~3배 더 자주 리더십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가 7점 척도에서 5, 6 또는 7을 준 경우 응답을 "높음"으로 분류했다.

리더십에 있어서의 고충에 대해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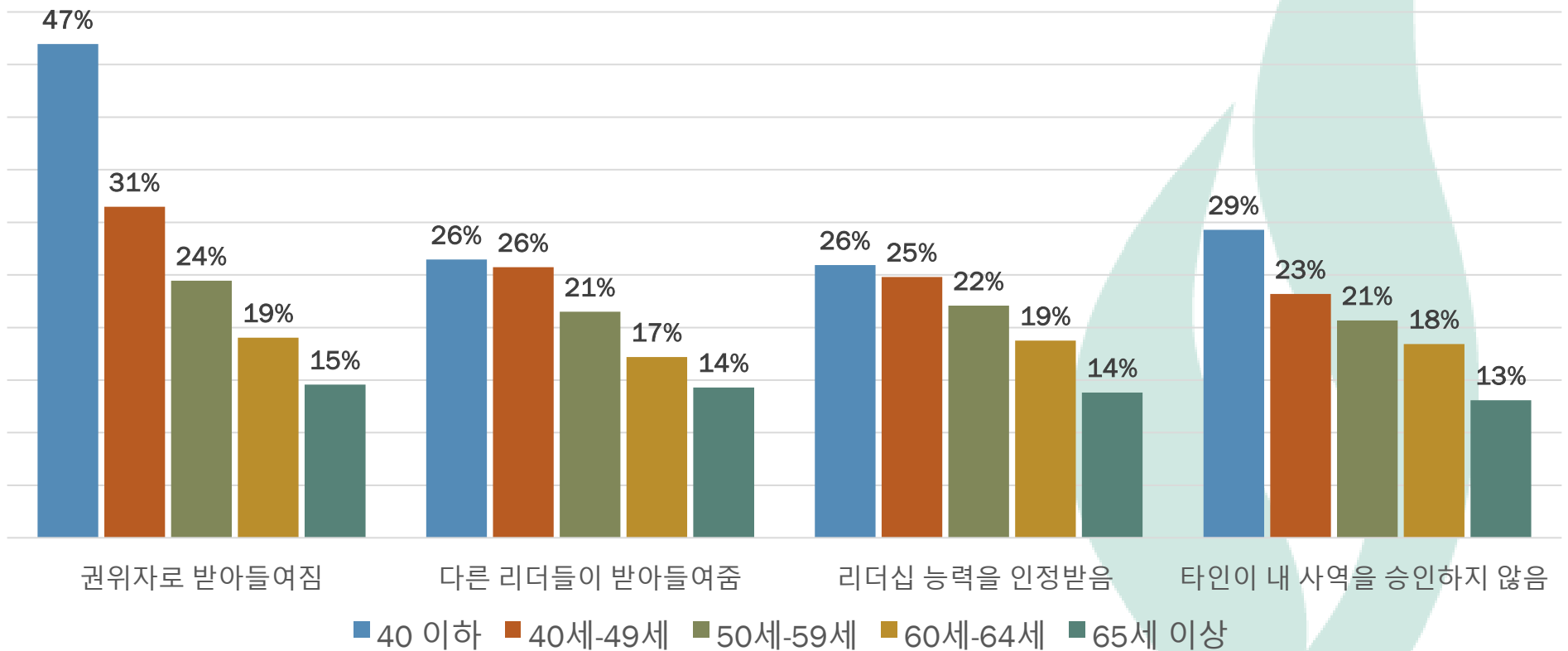


젊은 목회자들은 권위자로 인정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나이든 응답자는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7점 척도에서 5, 6 또는 7을 준 경우 응답을 "높음"으로 분류했다.

연령에 따른 리더십에 있어서의 고충에 대해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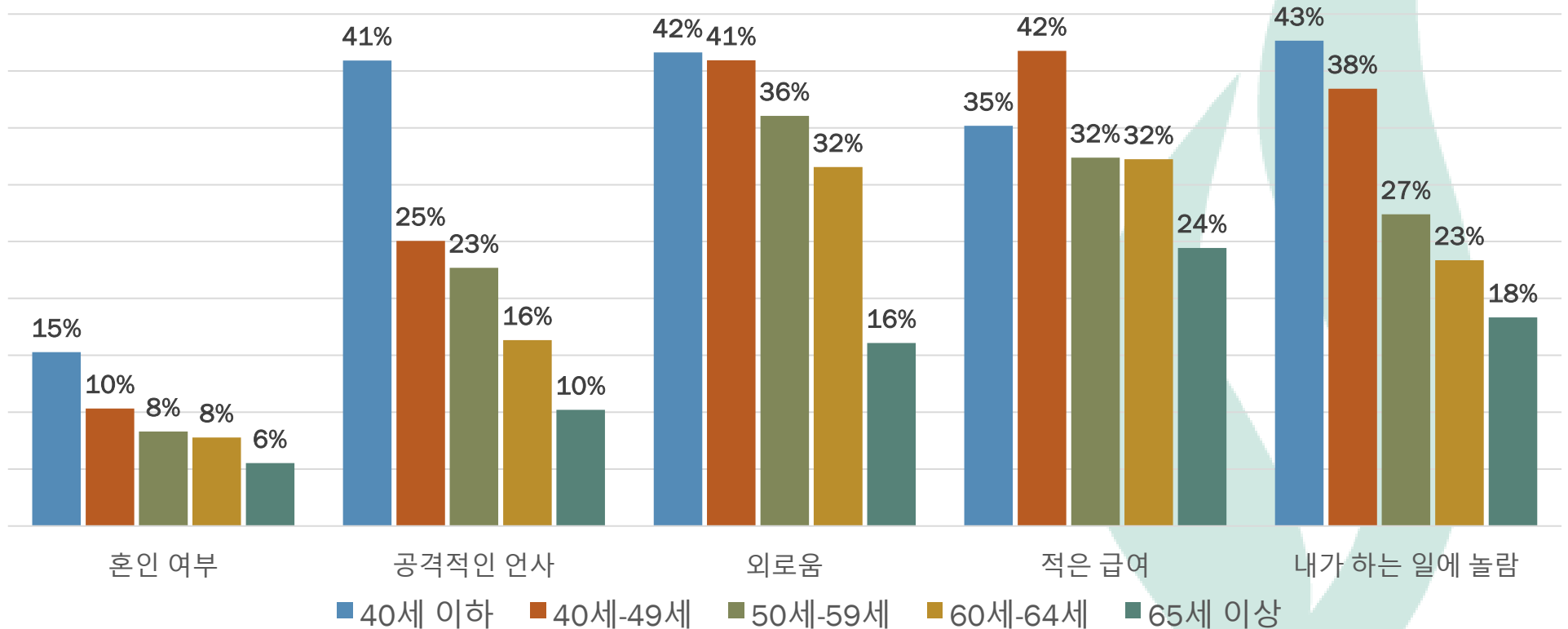


모든 연령대에서 리더로서 외로움과 적은 급여 문제는 공통적이었다

65세 이상 응답자가 외로움을 가장 덜 느끼고 있었다. 젊은 응답자가 공격적인 언사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가 7점 척도에서 5, 6 또는 7을 준 경우 응답을 "높음"으로 분류했다.

연령별 리더십에 있어서의 고충에 대해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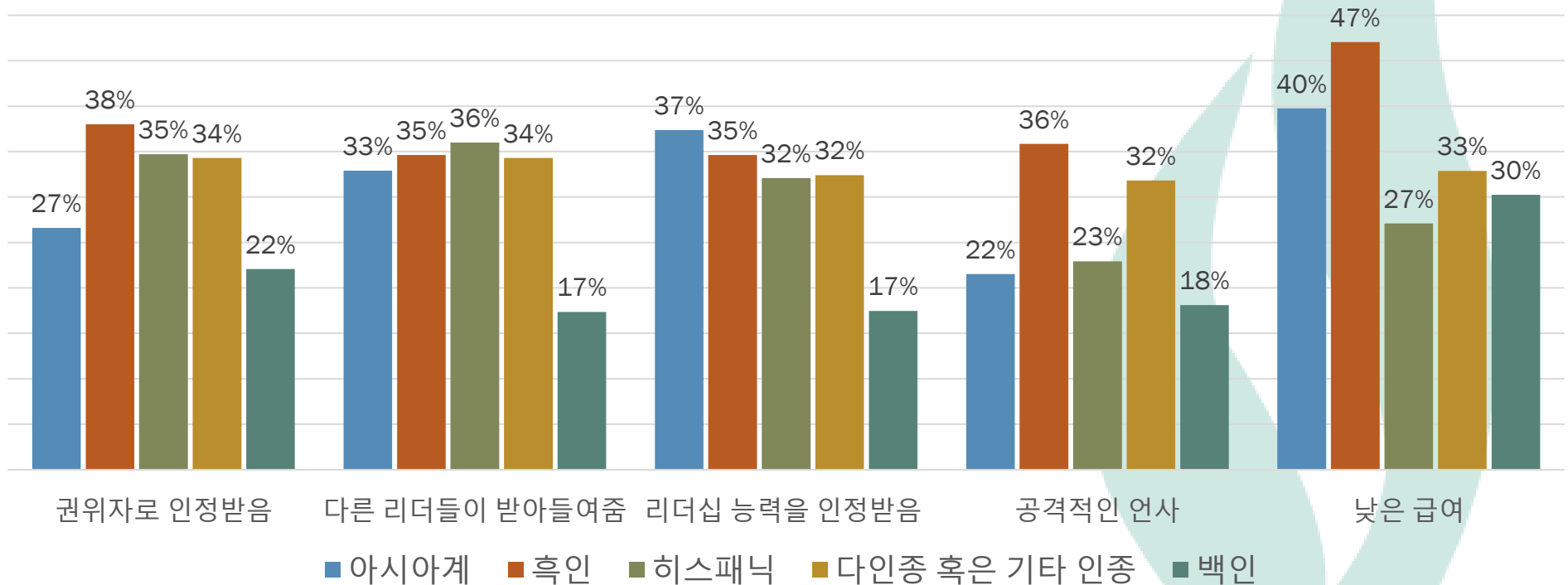


비 백인 목회자가 리더십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는다

리더십 어려움에 관해 높음으로 응답한 설문자 백분율은 인종/민족에 따라 다양했지만, 거의 모든 질문에서 비백인 응답자가 더 높은 점수로 대답했다.

승인에 있어서 어려움, 결혼 여부, 외로움 또는 "내가 하는 일에 놀람"에서는 인종과 민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범주는 아래 표에 표기하지 않았다. 응답자가 7점 척도에서 5, 6 또는 7을 준 경우 응답을 "높음"으로 분류했다.

리더십의 어려움 부분에 대해 높음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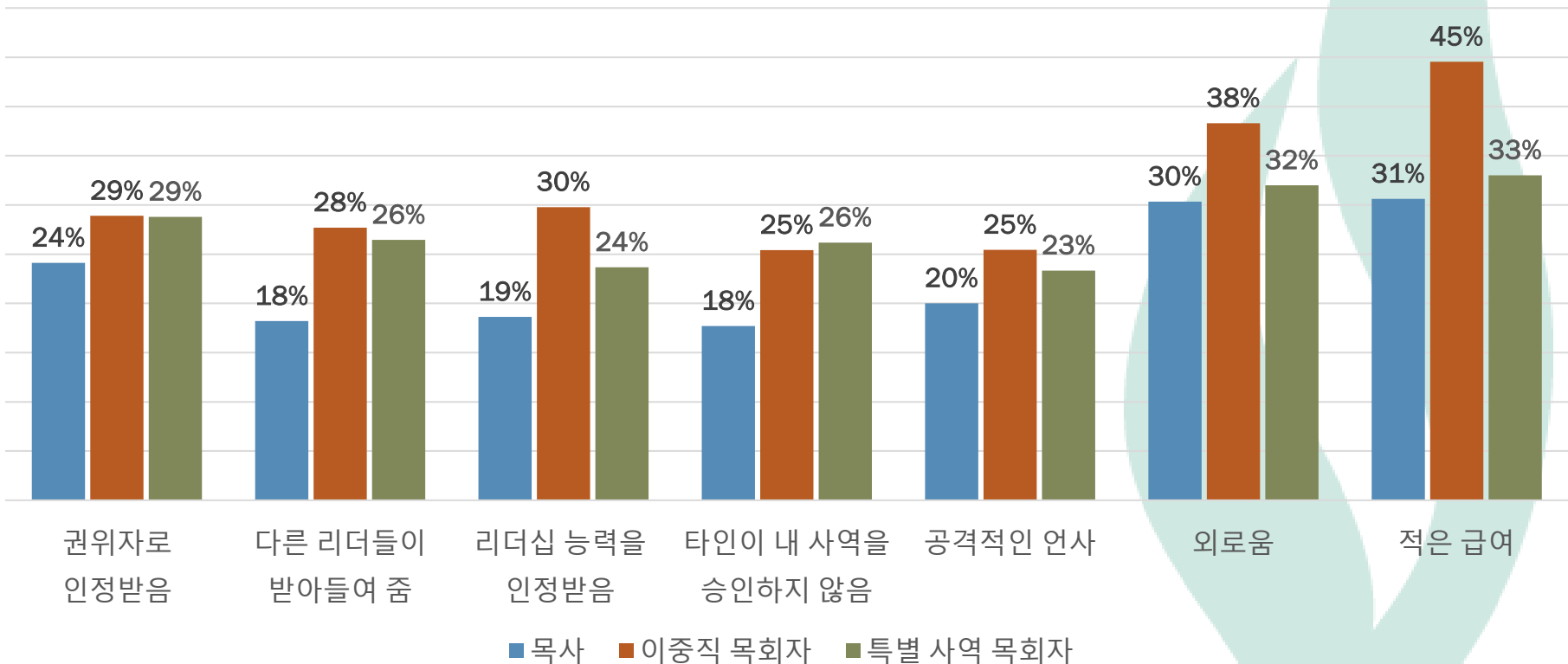
이중직과 특별 사역 목회자가 리더십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토로했다

목사는 가장 낮은 수준의 어려움을 보고했지만, 모든 범주에 있어서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응답에 있어서 차이는 받아들여짐, 인정, 낮은 급여 범주에서 가장 컸다. 목회의 종류는 결혼 여부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놀람"에서 겪는 어려움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았다.

응답자가 7점 척도에서 5, 6 또는 7을 준 경우 응답을 "높음"으로 분류했다.

리더십의 어려움 부분에 대해 높음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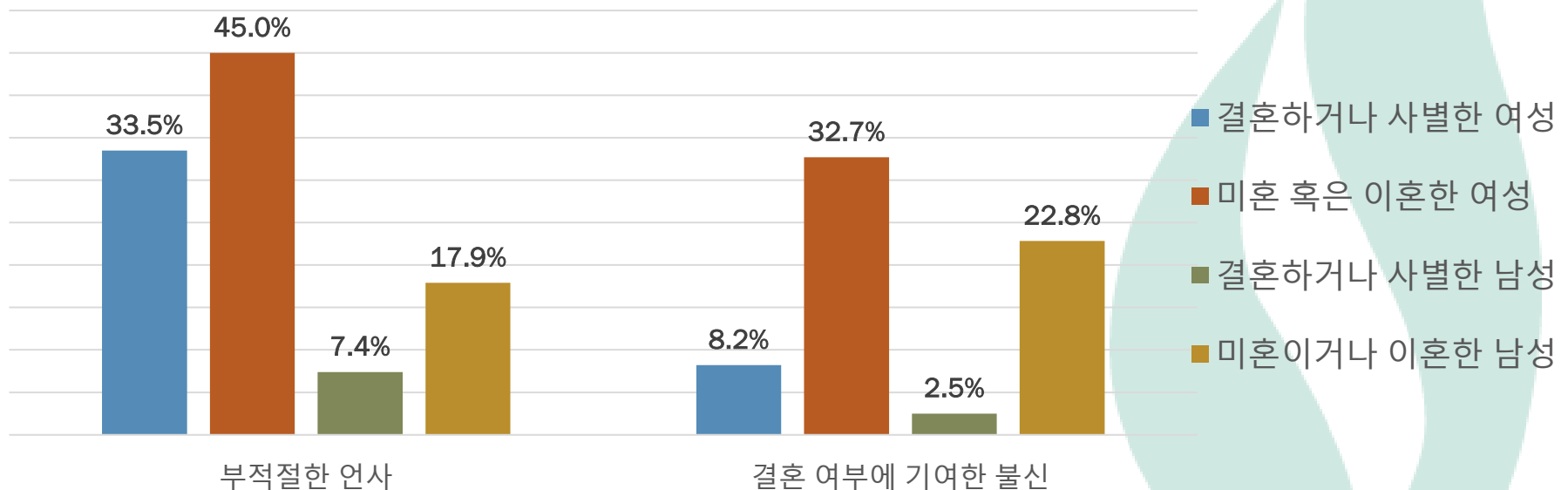


결혼하지 않은 응답자는 보다 많은 불신과 부적절한 언사를 마주한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불신과 부적절한 언사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고했다. 응답자의 12%는 미혼이거나 이혼했다.

응답자가 7점 척도 척도에서 5, 6 또는 7을 준 경우 응답을 "높음"으로 분류했다.

성별과 결혼 여부별로, 리더십에 있어서의 고충에 대해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



N = 3120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2019년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에서 나온 각 보고서는 독립적으로 작성되었다. 다른 보고서들에서는 데이터를 목사, 특별 사역 목회자, 이종직 목회자, 은회 목회자, 사역하지 않은 목회자로 분류하여 다루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분류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 그룹 간에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본 보고서에서 보고된 성별, 인종 및 모든 분야에 대한 차별은 목회 직무별 그룹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차별의 정도와 유형은 그룹마다 동일했다: 목사에서 특별 사역 목회자, 이종직 목회자,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설문 조사 고안자, 연구원은 자신의 작업을 되돌아보고 "왜 우리는 ...을 묻지 않았을까?"라고 자주 묻는다. 이 설문 조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차별의 근원을 묻지 않았다. 차별이 교회 구성원으로부터 왔는가? 다른 목회자인가? 신학교 교수인가? 공동체로부터인가? 혹은 위에 언급된 근원이 복합적으로 있었는가? 차별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를 해결할 접근법을 제안할 수 없다.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형태의 차별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차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유색인종은 백인보다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미국장로교는 차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리서치 서비스의 역할은 교회가 데이터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역할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차별이 계속되고 있음을 미국장로교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계속)

어려움은 앞으로 나가도록 이끈다

낮은 급여와 외로움은 대부분의 목회자가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두 가지 고충이다. 다른 두 개의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 보고서(재정 부채, 교육 부채)가 재정과 금전적 어려움에 대해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목회자가 낮은 급여로 인해 원하는 직위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를 보고했다. 소수인종 목회자 중에서, 응답한 흑인 목회자의 거의 절반은 적은 급여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외로움. 66 %의 목회자가 어느정도 외로움을 겪고 있으며 29%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느낀다. 대부분 목회자는 추가 직원 지원이 없이 단독으로 목사직을 수행하는 이들이다. 리더십을 가진 지위는 고립감을 동반할 수 있다. 문제는 목회자가 이러한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이 설문조사에 포함된 몇 가지 어려움은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 소수인종 및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반영한다.

비 백인 목회자는 지위를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며, 능력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공격적인 발언 때문에도 고충을 많이 겪고 있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성과 비 백인이 지도자 위치에서 정당하게 인정받기에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리서치 서비스는 미국장로교가 설문조사, 주요 대상 면접, 인구통계적 분석, 프로그램 평가 등을 이용해 데이터에 기초한 결정을 하도록 돕고 있다.

우리는 사회학, 공공정책, 경제학 등의 배경을 지닌 사회과학자들이다. 우리는 미국장로교 교회, 노회, 대회, 총회 기관 및 관련 조직을 섬기고 있다. 리서치 서비스는 행정서비스 그룹의 사역이다.

질문이 있거나 이 보고서의 사본을 원할 경우, 다음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십시오.
502-569-5077로 전화주시거나 research@pcusa.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RESEARCH
SERVICES**